

ChungNam Report+



충남의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

신동호

충남연구원 경제·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
cyberdhs@cni.re.kr

김보람

충남연구원 경제·산업연구실 연구원
qhqh28@cni.re.kr

주요내용

기회발전특구제도 동향 및 전망

- 최근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'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'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(ODZ,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) 도입 및 지정·운용 가시화

충남 경제·사회·환경 당면문제

- (경 제) 철강, 석유화학,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, 자동차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필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야기
- (사 회) 공간적으로 북부권 중심의 산업집적은 여타 권역과의 경제력 격차를 초래하고 이는 도내 지역 불균형 문제로 귀결
- (환 경) 석탄화력의 전국 최다입지 및 고탄소 업종 중심의 고착화된 산업구조는 환경문제 및 나아가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 초래

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필요성 및 정의

-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고착화된 경제·사회·환경문제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·군의 투자유치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정책대안임
- * (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작적 정의) ①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, ②사용 전력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기업, ③탄소저감(공정)시설 등을 갖춘 기업의 대규모 투자구역을 의미

정책제언

- 특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준비사항 외 도내 균형 발전 및 탄소배출 수준, 특구 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및 탄소저감(공정)시설 구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할 필요

01

기회발전특구제도 동향 및 전망

-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’이 의결(3.22)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(이하 ‘ODZ’,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) 도입 및 지정·운용이 가시화될 전망

* 동 법 제23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조항 마련

- ODZ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각종 세제 및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임

→ 기회발전특구제도 개요

1 추진시기



현재,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(지방시대특별법) **행안위 소위 통과(3.22)**



시행령
확정



연내 공모
예상

2 특구면적



면적 상한제 도입 및 지정면적에 대한 **광역지자체 재량권 부여 전망**

* 단, 앵커기업 투자 시 협력기업 동반투자를 감안하여 특구면적 제외 조항

3 인센티브



4종 세제 보조금 교육·인력양성 정주여건개선 + **차등전기요금제 검토 중**
(국가균형발전위원회)

*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지역차등전기요금 조항 마련 및 산자위 소위 통과(3.23)

4 지원대상



당초
지자체가 투자기업과
협약하여 정한 비수도권 지역



추가
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
또는 접경지역

5 조성지역



가능

조성된 계획입지

경제자유구역

개별입지

광역시도 간 또는
기초지자체간 연계 특구

6 투자업종



원칙적으로 투자업종 제한이 없으나,
지자체가 유치 희망업종을 지정하여 우대지원 가능

7 평가 및 선정기준(안)



- ① 투자계획 구체성 기업이 원하는 면적 및 부지 적정성, 투자규모 및 시기
- ② 집적효과 산·학·연·관 혁신클러스터 및 산업생태계 구축 가능성
- 특구 내 기관, 연구소 등 포함
- ③ 차별화 요소 타지역과의 차별성 등
- ④ 투자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
- ⑤ 정책의지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

8 지정절차

특구기본
계획 수립



지자체
신청



관련부처
협의



특구지정

* 현재,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확정 전으로 위 내용 중 일부는 변동될 수 있음

02

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

■ 충남은 경제·사회·환경 측면에서 고착화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함

- (경제) 철강, 석유화학,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, 자동차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필연적으로 전력 또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
- (사회) 공간적으로 북부권 중심의 산업집적은 여타 권역과의 경제력 격차를 초래하고 이는 도내 지역 불균형 문제로 귀결
- (환경) 석탄화력의 전국 최다입지 및 고탄소 업종(에너지 다소비 업종) 중심의 고착화된 산업구조는 환경문제, 더 나아가 도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 초래

가. (경 제)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

■ 전국 에너지 다소비 10대 업체 중 도내 업체로는 현대제철, 한화토탈에너지스, 롯데케미칼, 현대오일뱅크, LG화학 등 5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, 그 외 삼성디스플레이(18위), 현대케미칼(27위)이 'KEEP 30'에 포함됨

* KEEP 30(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) : 국내 산업부문 중 에너지 소비량 57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체결된 협약

■ 상기 업체가 영위하는 철강, 정유, 석유화학, 반도체업종은 에너지(전력) 다소비 업종순위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함

나. (사 회) 도내 권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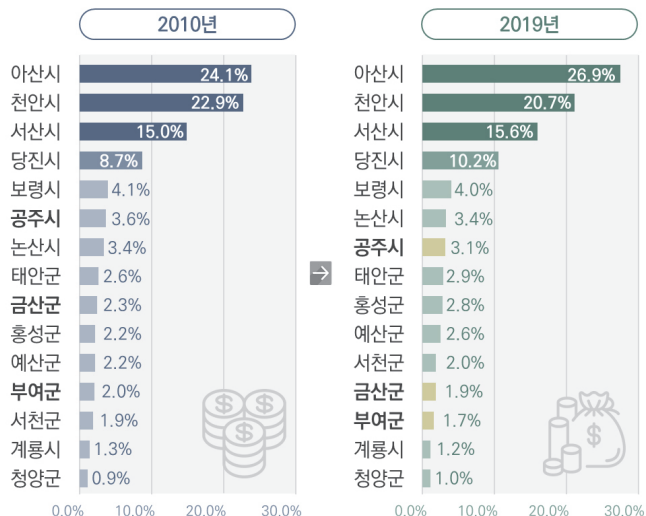
- 도내 북부권(천안, 아산, 서산, 당진)과 여타 권역(나머지 시·군) 간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
- 4대 주력산업(반도체 및 디스플레이, 철강, 석유화학, 자동차)이 집중된 북부권의 GRDP 비중은 2010년 70.7%에서 2019년 73.4%로 동 기간 중 2.7%p 증가함

| 에너지 다소비 업체 및 업종순위(2022) |

①	posco	포항, 광양	철강	대기업
②	H현대제철	인천, 당진	철강	대기업
③	S-OIL 에스·오일	온산	정유	대기업
④	GS칼텍스	여수	정유	대기업
⑤	Hanuhwa 한화토탈에너지스	대산	석유화학	대기업
⑥	SAMSUNG	화성, 기흥, 평택	반도체	대기업
⑦	YNCC·여천NCC	여수	석유화학	대기업
⑧	롯데케미칼	대산, 여수	석유화학	대기업
⑨	HD현대오일뱅크	대산	정유	대기업
⑩	LG화학	여수, 화치, 대산	석유화학	대기업

자료 : 전기신문(<https://www.electimes.com/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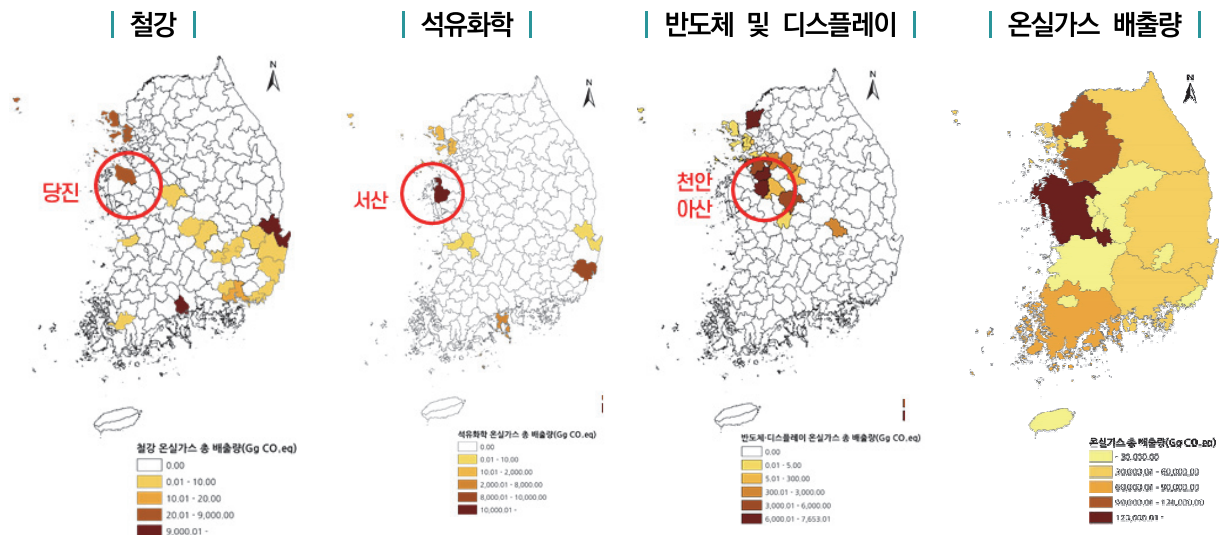
| 충남 지역내총생산(GRDP) 추이 |



자료 : 국가통계포털(<https://kosis.kr/>)

다. (환 경) 고탄소 업종 집적 및 석탄화력으로 인한 환경문제 심각

- 2021년 기준으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54.8백만톤 CO₂eq(22.1%)로 전국 1위임
 - 시군별로는 당진, 보령, 서산, 태안 등의 순이며, 업종별로는 석유화학, 철강,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순임
- *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는 북부권과 서해안권 내 고탄소 배출업종 집적 및 석탄화력발전 전국 최다입지에 기인



자료 : 환경부, 2022년 12월, 2022년 지역온실가스 배출량 시범산정 결과.

라. (투 자) 대내외적 투자·유치환경의 지속적 악화

- (대외적) 미·중 갈등, 러·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및 국내 경기침체와 리쇼어링(reshoring)으로 인해 국내 및 도내 투자유치환경은 날로 악화되는 추세임¹⁾
- (대내적) 이에 더해 수도권 규제완화, 정주여건 미흡, 인근 지자체(충북, 강원 등)와의 유치경쟁 심화로 도내 투자유치환경 매력도의 지속 하락 및 상대적 우위 상실

마.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의 필요성

- 충남도가 직면한 경제·사회·환경문제 간에는 개별적·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해법에 대해서도 통합적·입체적 접근이 필요함
 - 이에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고착화된 경제·사회·환경문제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의 투자유치 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
- * 민선 8기 충남 도정 아젠다 : 경제적 측면에 방점을 둔 탄소중립경제특별도와 지역균형발전 구현
- **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의 조작적 정의 : ①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, ②사용전력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기업, ③탄소저감(공정)시설 등을 갖춘 기업의 대규모 투자구역을 의미

1) 리쇼어링(reshoring)은 '제조업의 본국회귀', 즉 효율성 추구가 아닌 안전성, 위기관리 능력,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자국 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함

03

정책 제언

- 기획발전특구 조성을 희망하는 충청남도 내 시·군은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지자체의 준비사항 외 공모단계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됨
- 탄소중립형 기획발전특구가 충청남도의 경제적, 사회적,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△도내 균형발전 및 탄소배출 수준, △특구 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, △탄소저감(공정)시설 구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

| 지자체 준비사항 |



참고문헌

신동호, 2023, 탄소중립형 기획발전특구 조성방향 및 정책과제(2023),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착수연심회 자료
 환경부, 2022년 12월, 2022년 지역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
 국가통계포털(<https://kosis.kr/>), 전기신문(<https://www.electimes.com/>)